

Style 1

조선일보

FALL 2017





TAYLOR AND ROMEE, LONDON 2017



MICHAEL KORS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 MICHAELKORS.COM



the world of Michael Kors

뉴욕어가 가장 사랑하는 디자이너이자 젯셋족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브랜드, 마이클코어스. 지난 2016년 1월, 마이클코어스 코리아 설립 이후 더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마이클코어스의 지난 발자취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엿보자.



미국 패션의 역사를 대변하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마이클코어스

뉴욕에서 약 23마일 떨어진 작은 도시 롱 아일랜드에서 자란 다섯 살 꼬마. 그 어린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가 두 번째 결혼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직접 참여했고, 그 순간부터 디자인에 뛰어난 안목을 발휘했다. 그는 훗날 뉴욕 맨해튼 패션 스쿨 FIT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이내 학업을 중단한 후, 당시 뉴욕 트렌드세터들이 찾는 유명 부티크 로터스(Lothar's)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의상을 판매하며 패션계에서 주목받았다. 그리고 1981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이 브랜드가 바로 우리에게 'MK' 로고로 익숙한 마이클코어스(Michael Kors)다. 마이클코어스는 1984년 가을, 첫 여성 라인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오프 쿠티르적이면서도 클래식한 스포츠 웨어인 동시에 우아하면서도 미니멀한 드레스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버그도프 굿맨'을 포함한 '작스 피프스 에비뉴' 등 일류 백화점에서 단번에 러브콜을 받으며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후에도 여성 브랜드 '엘린느'의 수석 디자이너 겸 아트 디렉터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패션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셀린느를 기존 브랜드 이미지에서 탈피시키고, 파리지엔의 시크함과 뉴욕어의 실용성을 절묘하게 조합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셀린느를 유럽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시켰다. 오늘날 마이클코어스를 대변하는 단어는 수십 개가 넘지만, 프리미엄과 대중적인 코드를 모두 이해한다는 면에서 모든 수식어는 일맥상통한다. 그는 "저는 패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디론가 떠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패션이야말로 사람들의 기분과 생활을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그는 뉴욕 상류 사회의 젯셋 라이프를 그대로 투영한,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컬렉션을 꾸준히 이끌어온 주인공이다. 현재 마이클코어스는 미국 패션 브랜드로서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금액으로 뉴욕 주식 시장에 상장하고, 뉴욕과 런던, 파리, 밀라노, 도쿄, 홍콩, 서울, 싱가포르, 두바이, 상하이, 베이징 등 세계적인 패션 도시에서 약 7



1, 2 남성복에서 영감을 받은, 관능적인 우아함을 선보인 2017 F/W 컬렉션. 마이클코어스의 대표색인 카멜 컬러를 메인으로 한다. 3, 11 할리우드 스타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아만다 피트부터 세계적 팬인 에나 윈투어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마이클코어스 쇼장을 찾았다. 4 쇼가 끝난 직후 많은 이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마이클코어스. 5 가을을 맞아 새로운 키 컬러, 와인 색상으로 선보이는 머서백. 6 사계절 모두 착용 가능한 고급스러운 악어가죽 패턴의 크로커 슬라이드. 7 지난 1월 마이클코어스 창립 컬렉션 스토어 리뉴얼 이슈와 함께 한국을 찾은 마이클 코어스. 8, 9, 12 남성적인 느낌을 지어내는, 어깨를 강조한 클래식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며, 체크 패턴의 오버사이즈 코트에 슬릿 디테일 스커트를 매치하거나, 매니시한 코트와 팬츠에 여성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더하는 등 상반면 매력의 조화를 이뤄낸 것. 남성복에서 차용한 아이디어가 오히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관능미를 한층 강조한 셈이다. 마이클코어스의 대표적인 컬러라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카멜 색상을 필두로, 차분한 그레이와 시크한 블랙 컬러를 메인 팔레트로 사용했으며, 크림색과 짙은 올리브, 버건디 컬러를 새롭게 포인트 컬러로 추가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이끌어냈다. 특히 그중에서도 메탈릭 실크와 레오파드 프린트, 또는 크리스털로 정교하게 장식한 드레스 등은 글래머러스한 여배우를 상기시킬 만큼 독보적인 매력을 발휘했다. 평소 마이클코어스 팬이라 자처하는 할리우드 스타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아만다 피트부터 세계적인 여배우들이 쇼장을 찾은 가운데, 한국 대표로 배우 민효린과 모델 아이린이 참석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모든 상황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트위터



백70개가 넘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월, 마이클코어스의 한국 론칭 10주년을 맞아 마이클코어스 코리아를 설립, 국내에서만 창립 플래그십 스토어와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를 포함해 전국 26개의 매장을 열었다. 한국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인 마이클코어스 컬렉션뿐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액세서리, 슈즈, 워치, 주얼리, 아이 웨어, 그리고 향수와 코스메틱, 그리고 남성 액세서리 라인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는 한국 공식 이커머스 사이트(www.michaelkors.co.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다채로운 컬렉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페미니즘과 맥스클린이 공존하는 마이클코어스 2017 F/W 컬렉션

마이클코어스의 2017 가을 패션쇼가 열린 뉴욕 스프링 스튜디오에서는 기존 컬렉션과 달리 남성복 컬렉션을 함께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함께 시작된 무대는 남성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완벽한 하모니로 채워졌다. 그렇다고 남성복과 여성복의 식상한 트위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어깨와 허리 라인을 강조한 클래식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며, 체크 패턴의 오버사이즈 코트에 슬릿 디테일 스커트를 매치하거나, 매니시한 코트와 팬츠에 여성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더하는 등 상반면 매력의 조화를 이뤄낸 것. 남성복에서 차용한 아이디어가 오히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관능미를 한층 강조한 셈이다. 마이클코어스의 대표적인 컬러라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카멜 색상을 필두로, 차분한 그레이와 시크한 블랙 컬러를 메인 팔레트로 사용했으며, 크림색과 짙은 올리브, 버건디 컬러를 새롭게 포인트 컬러로 추가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이끌어냈다. 특히 그중에서도 메탈릭 실크와 레오파드 프린트, 또는 크리스털로 정교하게 장식한 드레스 등은 글래머러스한 여배우를 상기시킬 만큼 독보적인 매력을 발휘했다. 평소 마이클코어스 팬이라 자처하는 할리우드 스타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아만다 피트부터 세계적인 여배우들이 쇼장을 찾은 가운데, 한국 대표로 배우 민효린과 모델 아이린이 참석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모든 상황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트위터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 이번 시즌 주목해야 할 1백

"저는 가방을 디자인할 때 언제 어디서나 들 수 있는 가방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마켓 바스킷의 캐주얼한 기능에 도시적인 터치를 가미했죠. 최대한 심플하게요. 간결하게 표현한 우아함보다 세련된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이클 코어스는 새로운 백을 선보일 때마다 착용했을 때의 바율이 잘 맞는지, 편한지, 그리고 가방 속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등 실용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한 후,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는 여배우들의 의상을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 편하지 않으면 절대로 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마이클코어스의 백은 항상 미니멀하고 세련되며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실용적인 백으로, 전 세계 커리어 우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백 컬렉션 또한 브랜드 특유의 여유롭고 글래머러스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먼저 '뱅크로프트(Bancroft)' 백은 자중해의 코르시가 섬에서 휴가를 보내던 마이클 코어스가 마켓 바스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실용성을 갖춘 것은 물론, 세련된 이미지를 지어낸다. 하이 퀄리티의 부드러운 유리퍼먼 페블 레터를 메인 소재로 사용했으며, 이탈리아 코튼을 사용한 마감 처리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사이드 스냅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가방 모양을 변경할 수 있으며, 럭셔리한 자물쇠 장식이 특징이다. 미디엄 사철, 라지 사철, 위켄더, 토트 등 네 가지 스타일로 구성되어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즌 소개하는 머서(Mercer) 백은 지난해 론칭한 새로운 라인의 키 백으로, 클래식하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다. 소프트 핑크와 와인, 핑크 컬러를 2017 F/W 키 컬러로 추가해 선보이며, 크로스가 가능한 메신저 사이즈부터 라지, 토트 등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에디터 이자연





Uptown Elegance

심플하고 우아한 마이클코어스의
여성미를 한껏 드러내는 컬렉션과 오랜
시간 동안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배우
김하늘이 만났다. 실용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눈을 사로잡는 마이클코어스의 뉴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kim young jun

로맨틱한 벨 슬리브 레이스
원피스 35만원, 버클
디테일의 부티 힐 45만원대
모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풍성한 볼륨감이 돋보이는
양모 퍼 코트 3백50만원대,
슬리브리스 탱크 톱 19만원대,
플레이 데님 팬츠 25만원대 모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지브라 패턴의 벨벳 원피스
45만원대, 지니 카메라
크로스 바디 백 35만원대
모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포켓 디테일이 돋보이는 트윈드
재킷 45만원대, 사이드 그로엣
장식 데님 진 45만원대, 시크한
블랙 부티 힐 51만원대 모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아이보리 컬러 폴오버 45만원대,
버튼 디테일의 데님 스커트 21만원대,
버클을 매치한 부티 힐 45만원대,
네이버 컬러 슬론 에디터 백 55만원대
모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실루엣을 돋보이게 해주는 캐주얼
컬러 니트 드레스 39만원대,
스타드 장식의 오픈 토 샌들
39만원대, 바건디 컬러 머서 백
미디엄 사이즈 45만원대
모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레오파드 프린트가 돋보이는 패아크
퍼 코트 89만원대, 광택감 있는 코팅
위상을 활용해 가죽 느낌을 낸 블랙 코팅
진 28만원대, 크로코 패턴 슬라이드
31만원대 모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와일드한 레오파드 패턴의 테일러드
롱 코트 89만원대,
블랙 스카니 진 25만원대, 메탈릭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자니 카메라
크로스 바디 백 39만원대
모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신비로운 퍼플 컬러의 메이크
퍼 코트 85만원대, 버클 장식 블랙
부티 힐 45만원대
모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다양한 사이즈의 스타드를
층층하게 배치해 글래머리한
무드를 자아내는 니트 원피스 85만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문의 마이클코어스 창담 플래그십
02-546-6090

헤어 이원영
메이크업 최사노
스타일리스트 고행기
세트 스타일리스트 박주영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스크래치에 강한 유리파인 페블 레더로 제작한
 밴크로프트(Bancroft) 백, 자물쇠 모티브의
 잠금장치가 인상적이며, 사이드 스냅을 통해
 가방을 여러 세이프로 활용할 수 있다.
 (왼쪽부터) 라지 사이즈의 블랙 밴크로프트 백
 2백35만원대, 미디엄 사이즈의 데저트 컬러
 1백50만원대, 왈렛과 블랙 컬러 밴크로프트
 장지갑 각 63만원 모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 MICHAELKOR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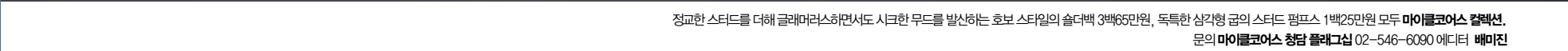


MICHAEL KORS
 COLLECTION

true
Luxury 마이클코어스 특유의 글래머러스함과 실용성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백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숄더와 크로스로 활용할 수 있는, 캔디를 인상시키는 앙증맞은 세이프의 체인 숄더 풋볼 백 1백59만원, 고급스러운 벨벳 소재의 버건디 컬러 슬라이드 63만원, 볼드한 체인 스트랩이 포인트인 부드러운 양가죽 소재의 체인 숄더 호보 백 1백59만원,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심플한 삼각형 굽의 블랙 펌프스 1백3만원 모두 **마에** 컬렉션.

[illegible]



MICHAEL KORS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 MICHAELKORS.COM